

평화의 전달자와 무의식적 편견
캐롤린 타운스, 국가 애니메이터
정평환 위원회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의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19 조)

평화의 전달자로서 모든 이의 신적 요소를 신뢰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 편견은 우리의 이해나 행동,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나 고정 관념으로서,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마음에 오는 자동 반응입니다. 그 결과 잘 듣지도 않고 의도치 않은 추측을 하곤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나 또는 대화 없이 생길 수 있고, 인종, 나이, 성, 신체적 능력, 문화 언어가 다른 이들을 헐뜯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작자이며 평론가인 말콤 글레드웰은 자신의 2007년 저서 블링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식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보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분석하며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머리는 빠른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무의식적 반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한 두 사람을 만날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믿게 됩니다. 소수의 행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모든이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여러분의 첫 인상이나 직감, 반응, 가정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이러한 첫 반응은 개인의 신적 요소를 존중하는지요? 문신하고 몸에 장식물을 단 사람들은 모든 범죄 성향이 있습니까? 테러를 자행하는 소수의 무슬람 때문에 모든 무슬람은 테러자입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신적 요소를 믿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이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이를 차이점에 상관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 입니다.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국적이나 종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딕토 16 세의 사도적 권고에 “하느님의 추상적이 아닌 각 고유 문화에 속한 언어나 이미지,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러한 관계성은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며 여러 문화와 서구 문화 변화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관계된 여러 문화의 인식을 우선 필요로 합니다. 문화적 현상은 모든 점에 있어 인간 경험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권고, 2010)

프란치스코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대로 특정 문화 우수 경향에 반대하여야 합니다. 문화가 나눔과 배타의 수단이 아닌 사랑과 관계를 키우고 배우는 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음 복음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마르코 7, 24-30)

이교도인 이 여인은 다른 문화와 국가에서 온 예언자이자 치유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니다. 자신이 아닌 딸의 치유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불리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니다. 예

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다름을 넘어섰음을 인식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차이점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신앙과 자비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 큰 숨을 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생각들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요?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위의 질문을 주제로 기도하고, 내가 모르는 편견을 가지고 내릴지도 모르는 결정을 해야할 상황을 위해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이 결정에 있어 인도해 주시길 청하십시오. 모든 이의 거룩함의 존재를 신뢰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도 믿게 될 것 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빕니다.